

40, 50대 비혼 여성의 결혼 및 가족 담론의 해체와 재구성

성 미 애(방송대 교수)

I. 서론

본 연구는 생활사적 맥락에서 40대, 50대 비혼 여성의 결혼과 가족 담론이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과 가족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삶의 주제이다. 개인적 맥락에서 보면, 결혼과 가족은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소속감을 확보해주는 주요 기제가 된다.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결혼과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를 형성하게 하는 주요 기제 중 하나이며,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의 주요 주체가 된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는 결혼과 가족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선택에 방점을 두고서 다양한 삶의 선택에 초점을 두게 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한 연구에 관심의 축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다양한 삶의 양식에 대한 연구들이 가족학 및 여성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들로 한부모가족 연구, 다문화가족 연구, 1인 단독가구 연구, 무자녀 가족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연결해서, 저출산의 원인을 결혼적령기에 있는 성인들의 비혼 현상에 두고서 비혼자, 특히 비혼 여성에 대한 연구들(김혜영, 2007; 박기남, 2011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혼 여성의 비혼 선택의 원인을 고용 불안이나 생활세계의 변화 등에 두면서, 궁극적으로 비혼 여성의 삶은 새로운 생활양식의 출현이기 보다는 생존과 경쟁이 요구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보다 나은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임을 밝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혼자에 대한 선행연구의 맥을 이으면서도 연구의 지평을 넓혀 중년기에 해당되는 40, 50대 비혼 여성의 결혼과 가족 담론이 생애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0대, 50대 비혼 여성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 비혼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20, 30대 비혼 여성들과는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비혼의 삶을 영위하였다. 즉 이들은 보편적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나 획일적인 사회적 규범이 일방적으로 적용되었던 시기 때부터 자의든 상황에 의해서든 비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써, 다양한 삶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편견과 맞서며 비혼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삶이 공존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과 가족에 대한

보편적 규범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과 가족 담론을 통해서 결혼과 가족의 의미 등도 재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삶의 세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후기 산업사회에서 그동안 소외되어온 40, 50대 비혼 여성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존의 료를 고려한 정책을 입안할 때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비혼 여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생활실태에서부터 가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 구분해서 살펴보면, 미혼 독신자의 생활실태를 살펴본 연구들(심영, 2002; 옥귀주, 1999; 윤소영, 2002; 조명은, 2002), 고용 현실과 저출산의 맥락에서 비혼 여성을 살펴본 연구들(박기남, 2011; 이삼식, 2006), 비혼 동기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김경원, 김태현, 2005; 김혜영, 2007; 심경미, 2003), 비혼 여성의 생애사를 살펴본 연구들(강은영, 2010; 양은주, 2005), 비혼 여성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을 살펴본 연구들(강은영, 진미정, 옥선화, 2010; 노미화, 이인수, 2011)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의 특징은 연구대상이 주로 20대, 30대, 4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비혼 여성 중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의 맥을 이으면서도 비혼 여성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의미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현재의 삶을 성찰하면서 노년기를 생각하는 중년기의 40대와 50대로 하였다. 또한 비혼 여성 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비혼 여성을 포함하면서 비교적 다양한 비혼 여성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40대, 50대에 해당되는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생각을 본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로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보자는 강은영(2010)의 비혼 여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근거로 하여 현재 법적, 사실적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며, 과거 혼인 경험이 없는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며, 이 중 현재 연령이 40대와 50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보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제보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형제자매	거주형태 (자가 여부)
# 1	49	대학원졸	자영업/400만원	1남4녀(부 사망)	본인+모 (어머니 소유 아파트/상속 기대)
# 2	43	대학재학	조리사/200만원	1남4녀(부 사망)	본인+모(어머니 소유 건물)
# 3	55	고졸	발권 업무/100만원	1남4녀(부모 사망)	본인 단독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 4	40	박사과정 재학	강사/100만원	2남1녀 중 장녀 (부모 생존)	본인+남동생+부모 (부모님 소유 주택)
# 5	46	박사과정 재학	강사/200만원	4남2녀 중 다섯째 (부모 생존)	본인 단독(본인 소유 아파트)
# 6	45	고졸	발권 업무/100만원	2남3녀 중 넷째 (부, 오빠 사망)	본인 단독 (임대아파트→연말에 자가 소유 아파트로 이사 예정)
# 7	45	대학원졸	교수/450만원	1남1녀 중 장녀 (부모 생존)	본인 단독(월세 아파트)
# 8	47	박사과정	강사/250만원	1남1녀 중 장녀(부 사망)	본인+모(어머니 소유 아파트)
# 9	43	대졸	무직/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받음	1남2녀 중 차녀(부 사망)	본인+모+기혼 언니의 생식가족(어머니 소유 아파트)
# 10	50	대학원졸	미술치료사/100만 원	2남1녀 중 막내 (부모 생존)	본인 단독(전세 아파트)
# 11	57	대학원졸	학회간사/60만원	2남5녀 중 넷째 (부모 사망)	본인 단독(임대아파트)
# 12	49	대학원졸	미술강사/300만원	2남1녀 중 장녀 (부모 생존)	본인 단독(아파트 소유)
# 13	51	대졸	회사 연구직/600만원	2남1녀 중 장녀 (부모 생존)	본인+부모(아파트 소유)

면접은 2013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1회의 면접을 통하여 제보자가 자신의 삶,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 면접 소요 시간은 사례별로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내용은 제보자들의 양해를 얻어 소형 녹음기에 녹음하였고, 녹음한 내용은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의 분석틀

심층면접 자료는 중심주제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심주제 분석법은 질적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제보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으로서(Braun & Clarke, 2006), 비혼 여성의 시각에서 보는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은 비혼이 된 계기, 결혼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 제보자가 생각하는 가족 범위, 노후 생활, 정책에 대한 요구, 상호작용하는 대상 등이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비혼이 된 계기, 결혼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 가족 범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1. 비혼자와 결혼

1) 결혼관: 때가 되면 가는 보편적 결혼관 vs. 부정적 결혼관

제보자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크게 때가 되면 가는 보편적 결혼관에서부터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부정적 결혼관으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보편적 결혼관을 보이는 경우에도 제보자의 성격이나 집안 상황에서 약간의 편차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다. 보편적 결혼관을 보이는 대표적인 제보자는 #1, #3, #4, #5, #7, #9, #11, #13이었는데, 이들은 40대 이전까지는 때가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에는 전제가 있어 결혼생활 자체는 여성에게 불리한 가부장적 구조이며, “생판 모르는 사람과 지지고 볶고 살아야 하는 결혼”(#11)“이기 때문에, ”(나에게) 마땅한 대상자”(#5)나 “(나에게) 맞는 사람”(#7)을 만나야 가부장제의 억압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현실을 감내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때가 되면 가겠지.. 하고... (중략) 부정적인 생각은 없었어요. 네...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사랑하면 하고 나는 또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하고 맞벌이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을 한거죠,” (#1)

“그냥 나이 들면 저절로 가게 돼있는 줄 알았어요.”(#11)

한편, 부정적 결혼관을 보이는 제보자는 #2, #6, #8, #10, #12이었다. 이 중 #12을 제외한 모든 제보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배경에는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생활이나 갈등 상황이 전제되어 있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자식들도 키워야 하고, 근데 아버지는 당신이 아프시니까 그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다 저와 엄마한테 푸셨어요. 그런 것을 보니까 결혼을 안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5)

반면, #12는 부모님의 결혼생활이 원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희생 속에서 부모-자녀 간 연대가 이기적으로 형성되는 것에 반감을 가지면서 청소년기 때부터 독신주의를 고수하였다고 밝혔다.

“혼자 생각했던 게...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청소년 기 때 생각했던 것이 그냥 쪽 (혼자 산다는) 그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중략) 한가지 생각을 했더라면... 주변에 저희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희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자기 딸한테 희생을 하는 모습이나... 자식들한테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 그 자식이 볼 때는 부모가 주는 사랑이지만 그게 타자가 보기에는 그게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적으로 살지는 말자는 생각이 그 때 좀 많이 있었어요.” (#12)

2) 비혼 계기: 자발적 비혼 vs. 비자발적 비혼 vs. 상황적 비혼

제보자들은 크게 보편적 결혼관과 부정적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혼관 속에서 비혼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계기는 크게 자발적 비혼, 비자발적 비혼, 상황적 비혼으로 나누어졌다. 자발적 비혼의 경우는 예상대로 부정적 결혼관을 보이는 제보자들에서 많이 나타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학대 및 폭력 경험과 형부의 외도 등으로 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아버지의 와병으로 인해 어머니가 생계를 담당하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 #6과 인척과의 갈등으로 인해 부모님의 부부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어린 시절부터 보면서 성장해왔던 #2, 결혼을 생각하면 가족이기주의부터 먼저 생각이 나며, 본인이 결혼을 했다면 이러한 가족이기주의적인 모습이 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청소년기부터 독신주의였다는 #12 등이었다.

“아빠가 서울에서..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래야 되나?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중략) 친척들이 왔다가면.. 집이..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중략) 친척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해서 그렇게 뭐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행복하게.. 그런 것을 별로 없었고요.” (#2)

반면, 비자발적 비혼의 경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한다는 보편적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던 제보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즉 #1, #4, #5, #7, #8, #11은 미혼 남성들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 자체가 별로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으며,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가족이나 주위의 권유로 선을 보는 등 결혼 상대자를 찾는 과정에는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였다. 그러나 35세부터 선을 보는 대상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1과 #5는 결혼과 자녀 출산을 동일시하면서 40대부터는 현실적으로 출산이 어려워짐을 인식하면서 현재에는 비혼의 삶이 고착화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0대 후반쯤 되면요... 이상한 데 들어오는 선 (예를 들어) 재혼 자리나 뭐 이랬는데 다 좋은데 흠이 있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 제가 딱 잘라버리죠. 그런 얘기 두 번 다시 하지 말라고...” (#11)

“제가 40대 이후에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뭐 아이도 있어야 되는데 굳이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그렇고...” (#1)

한편, 상황적 비혼의 경우는 주로 가족, 특히 부모 돌봄에 제보자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면 혼기를 놓친 경우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3, #9이었는데, 두 제보자 모두 남자에 대해서 관심도 크게 없었지만, 보편적 결혼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투병 중인 아버지를 본인들이 주로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비혼의 삶이 고착화되었다.

“선도 보라고 해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자리 나가는 게 사실 적성에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나가지는 않았는데 할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자리에는 몇 번 나가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막 하고 싶다 막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글썄. 그러니까 아직 연애다운 연애도 그 때도해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부모를,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투병 중인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생활 여건도 그렇고 환경적인 면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3)

3) 결혼과 비혼의 분기점: 40대

비혼 여성에게 40대는 특별한 삶의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부정적 결혼관을 보였던 제보자들은 물론 보편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던 제보자들도 40대가 되면서 결혼을 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비혼의 삶이 지속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전통적 결혼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결혼=출산이라는 공식을 내면화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40대가 되면서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어려워지며,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을 가진 남성들을 만날 확률이 낮아지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 연령대에서는 혼자의 삶이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것을 귀찮게 인식하면서 비혼의 삶에 적응하고 있었다.

“30대에서 40대 넘어가니까 갑자기 확 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marriage 시장에서 확 늙은 느낌이 드나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결혼하기는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아무리 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진짜 끝인가 보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고요.” (#2)

“왜냐하면 제가 40대 이후에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뭐 아이도 있어야 되는데 굳이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그렇고 (중략) 그런데 어... 너무 귀찮은 거야..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서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뭐 챙겨줘야 되지? (중략) (결혼이 여성들에게는 좀...) 굴레같이... (중략) 멧모르고 스물 몇 살 때 결혼 했으면 할 수 없지 살지만.. 다 알고 그런 나이에.. ” (#1)

따라서 제보자들은 40대가 되면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마혼인) 지금이 너무 편해요... 좋고...”라는 #7의 진술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편안함에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면서 본인의 삶의 설계가 미래의 배우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의해 계획되면서 더 명확해진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비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화된 것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1).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놓아버리니까 삶이 더.. 인생에 대한 설계가 더 확실하게 나를 어떻게 하고 노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가 더 확실해 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결혼을 안해도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서는 경제적인거나 노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더 구체적으로 살아지는 것 같아요. (중략) 네 사회가 변했죠.. 만약에 제가 60년대나 70년대에 이렇게 혼자 일하면서 산다고 했다면 다 측은해 하고 왜 안갔을까 어디가 모지라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아니에요.. 재는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런 결함을 가졌을 것 이라는.. 어렸을 때 시련을 당해서.... 그런 시선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구조.. 보는 시야가.. 아무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고.. 그래 혼자 살아도 좋아. 그렇게 보고.. 뭐 저 정도로 살면.. 만약 제가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혼자 살았을 때는 주위에서.. 그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결혼을 안해서 혼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런게 있어요. 사회적인 성취감을 얻고 나 혼자 살아도 이렇게 잘살고 이렇게 한다는.. 남들보다 두배정도 노력을 하는 편이죠.” (#1)

한편, #5의 진술은 예외적인 경우였는데,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아버지의 남녀차별 때문에 결혼도 성차별적 모습으로 인식하며, 결혼으로 엮이는 인적 관계를 피곤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인간관계라고 인식하는 경우로 오히려 40대가 되면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울타리를 찾아가면서 중요했던 인간관계가 약화되면서 결혼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고 결혼에 좀 더 비중을 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계기에는 투병 중인 아버지에 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전체 포괄적인 부분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 일부가 저의 인간관계 안에서 그닥 중요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과거에 한 70%가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좀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관계가 저한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범위를 더 크게 가져오는 것 같아요. 40대 이후에... (중략) (투병 중인 아버지가 제 결혼을 걱정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뭐 결혼에 대한, 해야겠다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어떤 기준이 없었는데 그 때 처음으로 결혼은 해야 되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결혼이란 걸해야 되겠구나. 그 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5)

4) 비혼의 삶과 일: 결혼 vs. 일

제보자들에게 일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 당시는 대학졸업하고... 또 직장다

나는 것들은 그만둬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1)라는 진술처럼 그 당시 미혼 여성에게 일은 결혼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한시적인 직업이었다. 그러나 “나는 뭐라 그럴까 결혼해서...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더라고요. (중략) 직장을 꼭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그 때도 있었어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1) 라는 진술처럼 일에 대한 비중을 결혼보다 크게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날 제보자들이 미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이 될 뿐만 아니라 미혼의 삶을 당당하게 영위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었다.

“저는 뭐라 그럴까... 제가 만약에 일이 없거나 그랬으면 삶이나... 노후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혹시 결혼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아쉬운 게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뭐 그런 것 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구차하게... 뭐 그런데 가서 결혼해서 애기 낳고 살림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1)

“일단 하여튼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던 그 시점에, 만약에 결혼을 할 상대가 있었다면, 왜냐하면 연애를 되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가는 상대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강했어요. (중략) 하여튼 그거를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더 많이 신경을 썼지 뭐 빨리 결혼을, 시집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13)

5) 미혼의 삶과 노후: 불안의 그늘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업 지위가 안정되지 못한 제보자들은 결혼을 경제력과 연결 지으면서, 때가 되면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있었다는 #11이나 꼭 결혼할 생각은 없었으나 경제력이 없어서 35세까지는 결혼을 생각했다는 #9처럼, 미혼의 삶을 노후 불안정과 연결 지으면서 본인의 노년기를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혼의 삶이 지속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40대에 보험을 들기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제가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경제력이 없잖아요. 아, 그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35살 정도에.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내가 너무 경제력이 없으니까 결혼을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다가 그게 한 순간에 지나가고 마흔 되면서 그게 아니고, 혼자 살겠다는 생각을 굳힌 거겠죠.” (#9)

“(40대 초반에 결혼을 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노년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연금을 하나, 그 시점에서 주변에서 연금을 한번 들어라 국민연금보다는 이런 그 개인연금 우리 그 보험사에서 하는 그런 연금이 더 좋다더라 그래서 제가 몇 번 서치를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들었죠. 그때 그 시기인거 같아요.” (#5)

하지만 이러한 제보자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주거 안정성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였다. 즉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나(#3, #5, #6, #12, #13) 적어도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1, #4, #7, #8), 임대 기간이 길어서 90대까지는 부담 없이 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경우(#11)에는 노후의 삶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외 제보자들은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특히 무직인 상태로 함께 동거하는 기혼 언니의 자녀들을 돌보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병간호하였던 제보자 #9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비혼의 삶이 현실화되는 현 시점에서 자신의 경제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을 찾는 시기가 자꾸 줄어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보이고 있었다.

“서른에서 마흔은 생각보다 짧게 금방 지나가고 그렇게 따지면 마흔에서 쉰은 더 짧을 것 같은 그 어떤 밀려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자꾸 줄어들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9)

6) 비혼생활의 장점과 단점: 자유로움 vs. 공상스러움

제보자들은 비혼의 상황을 좋은 점과 나쁜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좋은 점은 자유롭고 구속이 없으며, 생활 자체를 본인에게 맞출 수 있는 등 본인에게 집중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다.

“첫 번째는 자유롭다는 거. 주변에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단 게 자유... 자유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좋은 장점인 거 같구요. 두 번째는 관계... 관계성에 대한 갈등요소가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가족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좀 적게 고민을 하는 부분이 좀 장점인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경제적인 부분을 내가 알아서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거 같구요. 그리고 시간활용을 저에게 맞춰져 있어서 시간활용을 맘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5)

반면, 비혼 생활의 단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부녀도 사회적 지위가 된다.”는 #7의 진술이나 “기혼자들은 (비혼자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다,”는 #11의 진술처럼 여전히 사회적 편견이나 불필요한 호기심으로부터 불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세금을 많이 내며(#1, #11), 아플 때 혼자이거나 혼자 영화를 보거나 밥을 먹어야 하는 공상스러움(#2)이 있고, 동료나 친구가 자신을 이성으로 보는 등 싱글이면 가볍게 대하는 상황(#5, #7) 생기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나(#8),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를 통해 쌓을 수 있는 인맥이 없거나(#12),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되는 본인 가족이 없거나(#13), 결혼을 하면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얻고 자녀 통해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그런 점을 못 느낀다는 것을 밝혔다(#4, #5, #10).

“혼자 아프고 그러면... 아플 때도 좀 그렇기도 하고...” (#2)

그러나 현재는 비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화되면서 혼자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며, 본인 역시 당당해지려고 노력한다고 밝혔으며(#1), 자신의 연령대에 비혼자 수치가 많은 것을 보고 안심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4).

2. 비혼자와 가족

1) 가족관: 책임감을 느끼는 관계

제보자들은 가족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는 관계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혈연, 믿음, 운명공동체, 헌신, 친밀 등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전제하면서 서정적인 가족 개념을 보였다.

“(가족은) 서로 간의 책임감 때문에 (사는 관계)...” (#1)

이러한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망 후 기혼 형제자매들에 의해 본인이 어머니의 보호자로 인식되는 상황이 조금은 부담이 된다고 밝힌 #2와 어머니의 감정적인 반응이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하는 #10을 제외하고는 부모와 동거하거나 그렇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에도 원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제보자들은 원가족과 끈끈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도, 본인이 투병 중인 아버지를 전담해서 간호를 했고, 그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아 현재 혼자살고 있는데, 아버지 사망 후에는 혼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3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가족 뿐만 아니라 기혼형제자매의 생식가족까지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가족의 범위를 아주 폭넓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범위까지 가족의 책임을 다 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생네 가족하고... 부모님...” (#7)

“부모는 부모니까 이제 만약에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좀 해주어야 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되게 크고 형제 간에 관계가 있으면 형제 간에 좀 뭐 뒷받침 해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나혼자만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족간에는...” (#1)

특히 제보자들은 부담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자신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한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희생을 부당하게 인식하지는 않았다. 특히 제보자들은 결혼해서 인척을 모시는 상황의 스트레스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친부모를 모시는 상황을 수용하고 있었다.

“아빠가 너무 많이 아프시고 너무 이 생활에서 내가 결혼을 했으면 이 일이 다 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 어떤 때는 내가 막 시집 간 애들, 제 친구 하나도 시어머니한테 너무 시달려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머리를 뺏 뭉 애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자기 아들, 아들 하면서 그렇게 결혼한 그런 애들도 보면 아, 그럴 바에야 내 부모를 잘 모시는 게 낫지, 내가 왜, 진짜 뭐 그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잘 할수도 있겠지만 뭐 잘한다고 기본적인 모든 애들이 시집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더라고요.” (#9)

한편, 제보자의 부모, 특히 혼자된 부모의 경우도 기혼의 아들, 딸보다 비혼의 딸을 가장 편안하게 인식하면서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 배경에는 혼자살고 있는 딸을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도 깔려있었다.

“저는 제가 혼자 살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언니나, 저희 언니는 자기가 같이 살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런 말 잘 안하는데 (중략) 엄마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엄마가 자꾸 나이가 드시고 조금 어른들이 나이가 드시면 자기가 좀 의지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런게 없으신데 예전에는 그러다가 보니까 엄마도 이제 언니도 결혼했고 며느리도 안 편하고 사위도 안 편하고 내가 제일 편하다고 느끼시니까 자기는 나랑 같이 살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내가 속으로 ‘엄마 왜 나한테 그래’ 라고. 우스개 소리로 나는 ‘나랑 살 생각 하지 말고 아들이랑 살 생각해’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말이 그렇지 혼자면 외롭겠죠. 부모님 계신 게 낫고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큰 힘이니까. 그 생각을 하지만 그럴 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한테, 부모님 옆에서 제가 많이 케어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도 엄마 생각에는 제가 혼자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저랑 같이 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저는 그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웃음) 왜 나이 드시면 아들을 생각하셔야지.” (#9)

2) 개인의 선택과 딸로서의 삶의 상충: 불효

한편, 대부분의 제보자의 경우 40대가 되면서 자신의 비혼의 삶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자녀의 결혼을 부모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부모의 시선으로 자신의 비혼을 바라보게 되면서 불효 또는 죄송스러움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간접적인 표현으로 아버지가 없을 때 너네 큰 오빠가 너 손을 붙잡고 결혼식장 들어 가면은 어떨까? 이 말씀을 하신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때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회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아버지가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이게 불효구나.” (#5)

3) 어머니와의 친밀성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자녀의 결혼까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도 예외적으로 대부분의 제보자들의 부모, 특히 어머니들은 제보자들의 결혼을 원하기는 하였지만 제보자의 결혼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제보자들의 어머니는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으면서 딸의 성취를 지지하였으며, 이러한 절제된 관심과 지지는 비혼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즉 어머니의 지나친 통제 때문에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원치 않는 #10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제보자들은 딸의 결혼을 원하나 딸의 선택을 인정해주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못 만났을 때는 비혼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인정해주는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엄마랑 부딪힌 적도 없었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엄마랑 거의 일치를 다 봤었기 때문에 힘든 게 없었구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봐도 저희 엄마처럼 저런 부모 노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살면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굉장히 엄마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4)

“저희 엄마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면 그게 한 가정을 그대로 이루고 살 수 있을지 불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엄마가 원래엄마가 그런 면에서는 저희 엄마는 아들, 이런 것도 없고 의외로 대범하신 편이죠...” (#9)

V. 결론 및 논의

먼저, 40, 50대 비혼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면, 40, 50대 비혼 여성들은 결혼생활 자체를 여성들에게 불리한 가부장적 체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크게 때가 되면 결혼을 할 것이라는 보편적 결혼관과 부모님의 불안한 결혼생활을 지켜보면서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40, 50대 비혼 여성들은 40대를 기점으로 비혼의 삶을 현실적으로 수용한다. 이 배경에는 결혼과 출산을 동일시하는 전통적 결혼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을 가진 남성을 만날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현실적 지각이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40, 50대 비혼 여성은 40대에 접어들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미래의 배우자를 염두에 두면서 종속되는 삶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계획하는 삶을 영위하면서 비혼의 삶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비혼의 삶을 현실적 삶의 대안으로 인식하는 것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도 연결된다. 주거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노후에 대한 불안감 수준은 차이를 보이지만, 결혼한 사람들과는 달리 본인이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이 불안감은 보험을 들거나 일에 대한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이성은, 박홍주, 유정민, 2012)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도 비혼여성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노동권과 주거권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40, 50대 비혼 여성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면, 40, 50대 비혼 여성들은 가족을 책임감을 느끼는 관계로 인식하며, 자신의 생식가족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기혼 형제자매와 달리 원가족의 유희 노동력으로서 원가족의 돌봄이나 도움에 더 깊이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비혼의 삶을 부모님의 입장에서 불효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과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기혼 중년 여성이 인식하는 가족범위는 생식가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성미애, 2012) 비혼 여성들은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생식가족을 모두 포함하는 식으로 광범위하게 가족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혼 1인 가구의 경우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와의 교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고립된 개인도, 자신의 일이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자로 획일화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는 연구결과(김혜영, 2007)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40, 50대 비혼 여성들은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으며, 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볼 때, 40, 50대 비혼 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생각은 비혼 과정을 통해서 크게 해체되거나 재구성되는 측면은 없이 성인기에서부터 중년기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40대를 기점으로 비혼의 삶 자체를 수용하면서 편안함을 찾으며, 본인의 의지로 계획하는 삶을 영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의 삶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큰 만큼, 이들의 경제력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급형 소형 주택 확대 등에 정책적 관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영(2010). 자발적 비혼 여성에 대한 자전적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은영 · 진미정 · 옥선화(2010).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 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2), 135-144.
- 김경원 · 김태현(2005). 질적 연구를 통한 독신동기 요인과 남녀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43(6), 61-79.
- 김혜영(2007). 1인 가구의 비혼 사유와 가족의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041-1057.
- 노미화 · 이인수(2011). 비혼 여성의 가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치료학회지**, 19(1), 77-101.
- 박기남(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27(1), 1-39.
- 성미애(2012). 중년 기혼 남녀의 전통 가족 의례와 제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본 현대 한국 가족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6), 103-114.
- 심경미(2003). 비혼 여성에 관한 연구: 30대 중반 이후 40대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비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영(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97-208.
- 양은주(2005). 고학력 비혼 취업 여성의 일과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옥귀주(1999). 미혼 독신자의 생활실태와 만족, 불만족 수준.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영(2002).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09-217.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형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성은 · 박홍주 · 유정민(2012).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방안 수립**. 서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조명은(2002). 독신가구의 주거계획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19-227.
- Braun, V. &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40, 50대 비혼 여성의 결혼 및 가족 담론의 해체와 재구성

임 중 철(부천대 교수)

안녕하세요. 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중철입니다. 먼저 귀한 추계학술대회에 초대해주신 한국가정관리학회와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주로 20대, 30대, 40대에 집중되어 있는 다수의 선행연구에 더하여 40대, 50대의 중장년 비혼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기존 연구의 대상범위를 확대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질적연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결과물들이 시간은 더디나 하나 하나 쌓여가면 분명 학문적 지평을 여는데 분명 일조할 수 있는 귀한 결과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연구 제보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학력을 살펴보면 총 13명으로 40대 비혼 여성 9명, 50대 비혼 여성 4명으로, 학력은 고졸 2명, 대학재학 1명, 대졸 2명, 대학원졸(박사과정 포함) 이상 8명이었으며, 이들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자료는 중심주제 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비혼 여성들의 안정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업(노동권)과 안정된 주거환경(주거권)의 확보가 중요한 조건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제자는 비혼 여성의 가족관은 가족을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어 원가족의 유희 노동력으로서 원가족의 돌봄과 도움에 더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1인 비혼 여성의 경우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독신을 개인주의로 단정하여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이 기존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통해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는 40대, 50대 비혼 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생각은 비혼 과정을 통해 해체되거나 재구성되는 측면은 없으며 성인기에서 중년기까지 지속된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중년기 비혼 여성과 관련하여 몇몇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Mumaw(1970)는 40대 비혼 여성들의 경우 그들이 가족을 만들지 못해 가족을 갈망하는 불안정한 시기여서 그들의 가족 중 노부모와의 새로운 관계형성이 확립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0대에는 은퇴를 진지하게 고려하며,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는 은퇴하고 노년기를 외롭게 인식하거나 또는 자신의 삶이 훌륭했다고 인식하며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Enoch(1987)는 40대 초·중반 집단은 독신에 대한 반응이 가장 이질적어서 독신 상태에 대한 양가감정이 있으며, 자신에 대한 방어가 심했고, 위기감도 느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집단은 독신을 수용하는 것에 40대초·중반에 비해 동질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적응수준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의 경우 비혼 여성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 주목할 점은 질적 연구가 두드러지며, 이는 아마도 과거의 선행연구들이 비혼 여성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해를 이끌어내려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김소라, 2007).

제가 발제문을 접하면서 주목했던 점은 初老직전의 40~50대 비혼 여성의 삶이 노후의 삶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삶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중년시기에 있는 비혼 여성의 개인적 삶과 가족관계가 그들의 노년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통계 추이를 살펴보면 현 40대 비혼 여성들이 노년기에 접어드는 2030년에는 전체 가구 수 21,717,000가구 중 노인가구가 7,690,000가구로 전체가구의 35.4%를 차지하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노인 가구 중 독신노인가구가 2,820,000가구로 전체 노인 가구 중 37%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2012년도 독신노인가구 비율 35%와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4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빈곤노인 중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많다는 점입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노인수급자 중 여성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71.5%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노인 수치를 제시한 이유는 현 중년기에 접어든 비혼 여성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중년기의 건강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노년기의 그들의 노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비혼 여성과 관련한 연구들이 고학력, 20대, 3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향후 중·장년기 비혼 여성의 문제를 노년의 삶과 연계시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학력과 경제수준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므로 아마도 고학력 비혼 여성들의 노년기의 삶 중 경제적 측면은 그렇지 못한 비혼 여성에 비해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있어 노후의 혼자 생활하는데 있어 찾아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 즉, 외로움이라는 정서적·심리적 측면에 있어 부모와 형제자매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는 그들에게 있어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매개라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혼 여성에 있어 가족구성은 지금보다 더 견고하고 친밀감있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중년기 저학력 비혼 여성의 경우 현 수준에서 높은 소득과 안정적 직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년기에 빈곤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을 연구하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홀로 노년을 준비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저학력 중년 비혼 여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저학력 비혼 여성의 삶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고학력 비혼 여성의 경우 안정된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지속이론에서처럼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에도 활발한 사회관계 활동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저

학력 비혼 여성의 경우 불안정한 경제활동으로 삶이 위축되어있고 제한된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위축된 사회관계는 노년기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들의 노후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환경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발제자의 연구결과에서처럼 중년기 비혼 여성에게 있어 비혼 과정을 통해 결혼과 가정은 크게 해체되거나 재구성되는 측면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따라서, 비혼 여성에게 있어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고학력 비혼 여성보다 저학력 비혼 여성에 있어 가족과의 분리보다는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노년기의 삶의 중요한 삶의 지지체계로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발제자가 제안하신 비혼 여성에 있어 정책적 측면 즉, 중년 비혼 여성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보급과 일자리정책 제안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리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비혼이라는 것이 개인적 선택이며, 이러한 개인별 특성을 모두 취합하여 정책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더 넓은 견지에서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비혼 여성이 아닌 여성의 괜찮은 일자리보급을 위한 여성고용정책안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책은 비혼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비춰지면 사회적으로 편파적 주택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여성을 위한 주택 정책안에서 다루어져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토론문을 준비하며 느낀 점은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6~7년 높은 것을 감안하면, 중년기 비혼 여성의 문제는 비혼 여성으로 축소하여 접근하기보다는 노년기 여성노인의 문제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다루어져도 매우 의미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토론에서 적절하지 못한 용어사용이나 표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